내포문화권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Upbringing Programs of Green Tourism in Nepo Culture Area

김 종 국 (아디다스 사장)·이 상 엽(한서대 행정학과 교수)

The problems of green tourism in the Nepo Culture A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gnition of green tourism with ordinary people is short even though some leaders in the villages think the green tourism as the alternative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econdly, the movement of green tourism is still naive stage to activate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ince there is much more to do in several respects, such as acquiring the information with regards to the management of green tourism programs or the agencies to educate the green tourism systematically etc. Thirdly, the shortage of systematic programs using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o induce the urban people is prevailed. Fourth, there are absolute deficient so many facilities and programs to educate and learn the green tourism in the systematic manner. Fifth, there leaves much to be desired in the construction of internet homepage, advertising books or manners in order to upbringing the green tourism. Sixth, there is a difficulty of facility investment or development of several programs due to the seasonality. Lastly, there is a shortage of relevant infra near the villages to induce the urban citizens.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the previous mentioned problems, the several strateg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linkage with urban cities and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ccomodations in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ods representing the villages, sails of products of the villages, etc. The linkage with tour and agriculture: the experience of farming to the visitors of urban people, putting in good order of the environment and nearby beautiful scenary, the exhibition of various events, etc. The linkage of people by people: the establishment of activating organization of green tourism, the increasing opportunity of education in green tourism, etc.

키워드 : 그린투어리즘, 내포문화권, 자연자원, 관광

Key Words : green tourism, Nepo Culture Area, natural resource, tourism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하는 도시의 관광객을 농촌지역의 쾌적한 전원형 휴식공간에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관광 농업정책이 198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관광농업정책은 농어촌발전특별법(1990)과 농어촌정비법(1994)을 통하여 그린투어리즘으로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농촌지역의 유휴자원을 휴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정기환, 2001: 73).

그러나 농업의 서비스적 기능을 강조한 관광농업은 다양한 관광농업의 전체상을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특히 이용자란 측면에만 지나치게 경도되어 관광과 레크레이션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농업을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란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이호철, 2000: 171).

이와 같이 관광농원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협애성과 편기성을 벗어나고 국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그린투어리즘은 낙후된 농업, 농촌을 개발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통문화와 복지향상',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유휴농지활용'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도입 등으로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유흥·위락·위주의 관광을 탈피하여 테마를 살리고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가생활패턴의 변화가 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형 그린투어를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가민박 등 관광숙박업 실태 및 그린투어리즘 추진사례를 조사하여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이론을 탐색한다.

둘째, 충청남도 민박 등 관광숙박업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그린투어리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추진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충남지역의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대중관광에 대한 대안관광으로서의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을 고찰한다.

둘째, 우리 나라 농촌의 그린투어리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그린투어

리즘 관련 시범마을 대상으로 마을 및 농가단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사코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 및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4개 마을 대표자와 농가민박 운영자에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한다. 국내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논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Ⅱ. 그린투어리즘의 이론적 배경

1. 그린투어리즘의 정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지역, 연구자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어 또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갖는 용어로 농촌관광(rural tourism), 연성관광(soft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인간적인 관광(human 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책임있는 관광(redponsible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등 다양하게 혼용하고 있다(강신겸 외, 1997: 27-28).

영국(1997)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할 경우 '그린(green)'은 단지 '푸름(綠)'이나 '자연(自然)'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생명의 존중, 자원의 적정이용, 다양함의 평가, 또는 모든 생물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이 '그린'개념의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여러 가지 대상(예를 들면, 농업이나 환경 등)의 이해, 자기행동의 도덕성, 나아가 문제의 접근방법까지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생활양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치관, 자세, 규범에 따라 농촌지역과 도시를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호철(2001: 172)은 그린투어리즘이란 "우리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상품의 형태로 제공하는 새로운 농업형태이다. 즉 농업행위 그 자체를 상품화하여 하나의 장소에 고도로 집적한 형태로 농사체험과 농업환경까지도 스스로 상품으로 삼는 새로운 유형의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림부(2001)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하

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도시민은 여유 있는 휴식·휴양공간, 새로운 체험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농촌주민들은 농산물판매(1차 산업), 가공사업(2차산업), 숙박·음식물서비스(3차 산업) 등 소득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그린투어리즘의 대두배경

1) 농업정책의 전환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농수산부문의 개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의 WTO가입으로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은 개방과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급속하게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의 역할이 전통적인 식량생산기지에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전통문화의 보전, 도시집중의 억제, 농업고용, 노령인구의 부양 등으로 사회적 기능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원생활, 관광·휴양공간으로서 농어촌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정책이 기존의 농업중심의 정책에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최근 농촌에서는 다양한 농업·농촌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왔지만 농가수는 감소하고 혼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전체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업취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업후계자부족, 영세한 경영규모, 중산간 지역사회의 유지 곤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농촌다움을 감상하고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도시주민이 증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농촌간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생활에 싫증을 느껴 귀농하는 사람이 약간이지만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유기농업을 포함한 환경보전형 농업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NGO의 활동도 엿보이며 아이들의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폐기물의 리사이클을 포함한 지역자원의 순환시스템이나 자연에너지・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3) 농촌의 다면적 기능[3] 증대

3) ① 농림수산물·에너지의 생산·공급(농림수산물·에너지) ② 생활·취업의 장 제공(주거공간·산업공간), ③ 국토의 보전(토양침식방지·토사붕괴방지·홍수방지) ④ 수자원의 함양(保水·물저축·수량 조절) ⑤ 자연환경의 보전(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완화, 대기정화,

1960대부터의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이 후퇴해 온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나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0년경부터 농업·농촌이 가진 다면적 기능을 평가되하 시작하였으며 농업·농촌정비에서도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치 지워졌다. 즉 농업·농촌의 정비를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중요성을 농촌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도시주민 및 국민전체가 이해하고 지지하여 지역에 필요한 농업·농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4) 도시생활에 대한 염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 자동차 및 산업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도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숙박시설 등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박, 펜션, 팜스테이, 휴양림 등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대중화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5) 그린 라이프스타일 등장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도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푸른 자연과 인정이 남아있는 농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 그린투어리즘 정책현황

1) 중앙정부의 정책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비교한 농가소득의 비중도 95년 95% 수준에서 2000년에는 80.5%로 하락하였다. 이렇듯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취업이나 농업이외 사업을 통한 농외소득기회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의 비중을 보아도 일본 87.0%(2000년), 대만 83.1%(19

수질정화) ⑥ 자연·문화자원의 제공 (자연환경·농산어촌문화자원·농촌경관·도시농촌교류)

98년), 미국 88.6%(1997년), 프랑스 80.0%(1997년) 등 선진국과 주요경쟁국의 농외소득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 5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2-1> 중앙정부주도의 농촌관광 관련정책 주요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특 징	사업비	비고
농 림 부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농촌관광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2억 18개마을	공모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테마를 주제로 마을단위 농촌관광	1억 9개마을	공모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	15~20억 9개마을	공모
환 경 부	생태우수마을	생태우수마을 홍보	없음	공모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 마을	어업 및 일상생활체험 및 지역주민과 교류	20억원 57개소	공모
산 림 청	산촌종합개발 사업	마을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른 특색있는 개발	14억원 240개마을	지정

따라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정책 등 전통적 의미의 농업정책 이외에 지역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농촌의 고용을 확대하고 농가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관광개발을 선택하고 대규모 외부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중심의 대중관광지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규모 대중관광지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광지 조성재원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지역이 의도하고 있는 방향과는 무관하게 외부인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관광지가 조성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성”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의 참여와 농촌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개발이 아니라 도시자본만 살찌우고 쓰레기만 남기는 관광개발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의 관광패턴이 대중관광에서 연성관광 즉 농업, 자연, 역사, 문화, 지역축제 등을 주제로 하는 대안관광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고 강원도·순창군·금산군 등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의 관광개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소수의 자치단체에 한정된 경향이다.

4.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 문화관광개발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고 대신 농림부(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주말농원개발사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관광농원 및 민박마을에 대한 조영숙(2000: 17-23)의 연구결과에서도 농촌관광시설 운영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 대부분이고, 관광객 방문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다. 관광농원에 대한 정책지원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규모가 적고 지원조건도 불리하며 민박마을은 융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자율이 관광농원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다.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조항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책지원도 시설자금에 한해 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농촌·농업관광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여 도시의 호텔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농촌관광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어렵고 프로그램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첫째, 시설공급에 치중하여 농촌지역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하는데 소홀하였고 둘째, 농촌주민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여 부실경영을 초래하였으며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성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의의를 살리는데는 한계를 보였다(박시현 외, 2002:13)고 할 수 있다.

Ⅲ.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1. 충청남도 농어촌민박 현황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연도별 농어촌민박업체수를 보면 91~2000년이 전체의 76.03%, 다음이 81~90년이 16.8% 등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업체는 최근 10년 이내에 창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농어촌민박 현황

구 분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연간소득(백만원)	평균조업월수
충청남도	363	695	6,058	5.5
천안시	3	3	29	8.3
공주시	38	79	1,235	11.0
보령시	111	217	1,833	6.8
서산시	2	4	11	12.0
논산시	1	2	60	10.0
부여군	1	33	981	12.0
청양군	3	6	23	5.0
태안군	182	325	1,647	3.6
당진군	22	26	239	3.4

자료 : 통계청, 2000년 총사업체통계조사, 2002.

2.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현황

2002년 충청남도 내에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시범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표 3-1-7>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현황

구 분	사 업 명	마 을 명
농 림 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보령시 주교면 신대3리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거북이마을)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합전마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환 경 부	생태우수마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마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산 림 청	산촌종합개발사업	청양군 정산면 도림리 등
농 협	팜스테이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합전마을 등

우선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로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와 보령시 주교면 신대3리,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로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로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로 홍성군 홍동

면 문당리,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4]로 청양군 정산면 도림리 등, 농협 팜스테이마을로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합전마을 등이 지정되어 있다.

3. 그린투어리즘 사례조사

1) 조사대상

농촌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 등의 각 부처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농협의 팜스테이 등을 실시하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마을은 아름마을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전통테마마을은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마을, 팜스테이는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등 4개 마을이다.

또한 이들 4개 마을 이외에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서천군 마서면 합전리,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등도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조사도구는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단위 및 농가단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마을단위는 체재시설, 체험, 교육, 생산 및 판매, 홍보, 네트워크, 외부지원 등의 항목과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농가의 경우 그린투어리즘 도입, 운영, 외부지원 등의 항목과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은 마을단위 체크리스트는 리장이나 그린투어리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지도자, 농가단위인터뷰는 그린투어리즘이나 팜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결과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마을단위[5] 및 농가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충청남도 내에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이 19개 조성완료 되었거나 추진계획에 있다.

5)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구단위로 지정되지만 편의상 마을단위로 정의하기로 한다.

(1) 마을단위

첫째, 도시민들이 방문했을 경우 숙박할 수 있는 농가민박 및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를 조사한 결과, 오학리를 제외한 3개 마을은 기존농가를 이용한 농가민박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농가민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들의 경우는 대부분 음식물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으며 방문객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가민박의 경우 대부분 기존농가를 이용한 민박이었으며 빈집을 이용한 농가민박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수통리의 경우 농촌빈집을 농가민박시설로 개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기존농가이용 농가민박	○	×	○	○
빈집이용 농가민박	×	×	×	×
음식물 제공	○	×	○	○

둘째, 도시민들이 마을을 방문했을 경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오학리를 제외한 모든 마을이 농작업 체험이 가능하였으며 대표적인 농작업체험은 고추따기, 벼수확, 인삼파종 및 캐기, 등이었다.

전통문화체험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오학리의 경우 인근의 향교와 연계하여 한학, 예절교실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밤줍기, 메뚜기 잡기, 고기잡기, 고사리채취, 버섯채취 등 마을특성을 고려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었으며 농작업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안내하는 안내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농작업 체험가능	○	×	○	○
전통문화체험 가능	×	×	×	×
이벤트 개최	×	○	○	○
체험프로그램안내자 보유	○	○	○	○

<오학리 별마을 밤줍기 체험행사 개최>

"별마을에 알밤이 벌었데요"

늦 매미가 울고, 고추잠자리가 날아 다니는 눈부시도록 푸른 가을하늘!
오학리 별마을 청년들이 정성껏 돌보아 온 밤이 토실토실 가을빛에 여물어 있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을의 정취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밤나무 단지 안내
● 위치 :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산 10-1번지 3필지
● 면적 : 약 6만평, 밤나무 약 5,600여 그루(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2. 행사내용
● 일시 : 2002.9.9-10.20
● 행사참가비
- 어른 : 9,000(4kg), 어린이 : 4,000(2kg)
- 입장시 밤을 담을 수 있는 망을 제공합니다.

3. 준비물 및 주의사항
● 긴소매 옷, 장화(등산화, 운동화), 모자, 코팅된 장갑
● 만약 벌집을 발견시는 당황해서 건드리지 마시고 운영팀에 연락하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이꽃 버섯이나 자연산 영지버섯을 제외한 모든 버섯은 절대로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식수와 구급약이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찾아오시는 길
● 해미읍성에서 운산방향으로 서산고등학교를 지나 7~800여 미터 지나면 다리가 나타납니다.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우회전 하신 후 설치된 안내 이정표를 따라 계속 직진하시면 밤나무단지내 주차장까지 오실수 있습니다.

별마을 청년회

셋째,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마을은 오학리와 내현리였으며, 수통리와 홍도마을은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마을계획은 홍도마을을 제외한 모든 마을이 수립하고 있었으며 그린투어리즘을 연구하기 위한 마을연구회도 내현리와 홍도마을에 구성되어 있어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지도자 및 주민교육실시	×	○	○	×
마을계획 수립	○	○	○	×
마을연구회	×	×	○	○

넷째,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이 농가민박과 농특산물의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라는 점에서 농특산물 생산 및 판매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마을이 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직접판매하고 있었다. 거북이 마을과 홍도마을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마을별로 외부에 자랑할 만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친환경 농축임산물 생산	×	×	○	○
대도시와 농산물 계약재배	×	×	×	×
자랑할만한 농특산물	○	×	○	○
농특산물 판매시설 및 판매여부	○	○	○	○
마을에 음식점 및 레스토랑	○	×	×	×

다섯째,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홍보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홍도마을과 수통리에 인터넷홈페이지[6]를 개설하고 있었으며 마을을 소개하는 홍보·안내책자, 팜플렛도 발간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수통리와 홍도마을에는 농협에서 팜스테이를 실시하는 마을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지만 오학리와 거북이 마을에는 마을을 소개하는 입간판 및 도로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들이 마을을 찾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각 마을들은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인터넷 홈페이지	○	×	×	○
홍보·안내책자, 팜플렛	×	×	×	×
마을소개 입간판 및 도로안내판	○	×	×	○
도시민들 유치 노력	○	○	×	○

여섯째, 도시, 지방자치단체, 인근마을과의 네트워크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모든 마을이 도시의 아파트단지·단체 등과 직거래 및 도농교류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린투어를 실시하는 다른 마을과도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청·농업기술센터 등 지방행정기관과는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마을전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도원농장, 대벌농장 등 농장단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도시와 직거래 및 도농교류	×	×	×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	○	○	○
그린투어를 실시하는 다른마을과 정보교환	×	×	×	×

일곱째,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들에 대한 외부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마을에 대해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들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자문이나 연구 등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마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들의 참여여부	○	○	○	○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	○	○	○

(2) 농가단위

그린투어리즘은 농가단위의 비즈니스이고 농가민박이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농가단위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농가민박이 여름철에 한정되어 있는 계절적인 특수성과 농산물판매와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전업형태의 창업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현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숙박시설 및 농가체험시설을 확충한다면 전업형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투어리즘은 가능하면 단독농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농가가 보유한 자원이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이었다. 다만 등산로, 화단조성, 휴양시설 등 마을내 기반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가민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농가경영교육은 선진지 현장체험을 통한 인식전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농가민박에 대한 강의, 농가민박에 참여하는 농가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결성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은 ①농가민박을 이용하는 외부방문객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②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③일반농가와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셋째,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지원의 경우 우선 행정기관의 행정적 지원은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으로는 농가민박시

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 등이었다.

3) 그린투어리즘 문제점

충청남도 농가민박현황,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및 농가민박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마을지도자나 민박경영자 등의 경우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농가민박, 농촌전통자원 등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이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농촌활성화 운동으로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다.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은 농가민박과 직거래, 농촌체험 및 교육 등이지만 아직까지 농가민박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곳보다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중관광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농촌체험 및 교육보다는 숙박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도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농촌지역에는 향교, 서원, 전통놀이문화, 문화재 등 유무형 전통문화가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그린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현재의 작목반과 유사한 형태로 농가민박을 실시하는 농가주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여섯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가민박이 반드시 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와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환경농특산물, 지역농특산물, 농특산물 가공품 등을 인터넷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거래하고 있으나 농산물 직거래는 일부 선도농가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인터넷홈페이지구축, 홍보책자, 마을안내판 등의 홍보방안이 시급하다. 현재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경우도 마을지정안내판을 제외하고는 외부방문객이 지정여부를 알 수 있는 홍보물 및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여덟째, 대부분의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부전문가들로부터는 자문 등을 받고 있었으나,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들과의 정보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선진기법 등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홉째, 농가민박경영자들은 여름철에 한정된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설투자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여름휴가철에 집중됨으로써 시설가동률이 낮은 겨울 등의 시설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농가민박에 대한 투자욕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가민박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은 몇몇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방이나 빈집을 이용하여 도시방문객을 유인함으로써 일반가정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 주변의 환경 및 경관정비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은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Ⅳ.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1. 도시와 농촌의 연계

1) 농가민박 활성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농가민박의 창업과 성공적 운영에 대한 기술습득 등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 민박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어려운 실정에서 개별창업하는 농가민박에까지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농가가 기존주택을 이용하여 부업으로 추진하는 농가민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숙박시설이나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인심과 농가민박 경영주의 환대에 기초하여 다양한 농작업 및 농촌전통체험활동, 농특산물의 직접판매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 농가민박활성화 방안(2003~2005년)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주체
민박 수용능력 조사	•주택실태 조사 – 민박가구: 시설 및 서비스 수준 – 일반가구: 방문객 수용 가능한 가구 •주민의견조사 – 민박 및 팜스테이 희망가구 – 요구조건	시·군 연구기관
민박 공급량 판단	•고려사항 – 민박에 의한 숙박수요 분담율 – 농어가·주택 특성, 마을환경, 접근성	충남도 시·군 연구기관
민박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사업 실시	•민박시설 개선(농어가 주택개량) •마을환경 개선, 주차장·접근로 정비 ※농어촌 환경개선 지원정책 활용	충남도 시·군 연구기관
조 직 화	•민박조직 결성 •지원조직 결성	주민, 지역단체
교육·훈련	•서비스 방법 •체험프로그램, 향토요리 등 개발	관광전문가 시·군
홍보·예약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개발 및 기존 네트워크에 연동 •실시간 홍보·예약관리	충남도, 시·군, 농·수협

<표 4-2> 농가민박활성화 방안(2005년 이후)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주체
민박서비스 다양화	• 대실민박, 대가민박, 어린이민박, 장애자를 위한 민박, 농가캠프장, 고급민박, 낚시민박 등(음식물 제공여부 고려) • 전문관광시설과 패키지 상품화	민박단체 충남도 시·군
민박서비스 품질관리	• 가입기준과 등급결정기준 설정 및 엄격한 적용	민박단체
민박경영자 육성	• 민박단체에 의한 교육훈련 실시 • 지원단체에 의한 자문 및 연수 실시	민박단체, 농·수협 전문가 및 지원단체
민박네트워크 확대	• 민박 정보 및 예약 서비스 확대 • 충남 및 전국 민박 네트워크 형성 • 일본 및 유럽 민박연맹과 제휴	민박단체 농·수협 전문가 및 지원단체
민박경영 지원체제	• 자금지원 및 세제상 우대조치	중앙 및 지방정부

2) 농촌음식의 개발 및 제공

농가민박에서 농촌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농작업 체험과 함께 그린투어리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농가민박경영자가 제공하는 경우는 도시의 음식점에서와 같은 정갈함은 없지만 주변농장에서 직접 재배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변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지역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충청남도에는 시·군마다 향토음식이 분포하고 있어 농가민박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중심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하거나 농가고유의 음식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농가생산 농작물 생산 및 판매

농가민박 경영주는 환경농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농촌성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곧 그린투어리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도시민들의 재방문률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농가민박경영주는 농산물을 방문객 및 인터넷판매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의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대도시 백화점 및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농업과 관광의 연계

1) 외부방문객의 농림업 체험

조사대상마을에서도 모내기, 과일따기, 고추따기, 각종 채소수확 등의 농림업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체험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합전리 아리랜드의 경우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도시민들을 위해 감자·고구마·고추·참외·수박·가지·알타리무·강낭콩·배추 파종 및 가꾸기, 수확 등의 농림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농촌환경 및 경관정비 및 이벤트 개최

농촌은 농업행위의 활동을 위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내지 투쟁을 통해 형성된 지역으로서 그 속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작법, 취락, 생활양식, 언어 등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누적되고 표출된 것이 농촌환경 및 경관이다. 농촌환경 및 경관은 야생지 만큼 천연적이지는 않더라도 도시보다는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진 환경보다는 자연적인 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하다(윤진욱 외, 1995: 94).

경관자원은 도시민들을 보다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농가단위의 농가민박 및 체험활동과 긴밀한 연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

<표 4-3> 수통리의 환경 및 경관자원

구 분	항 목	내 용
환경자원	대기질	밝게 빛나는 많은 별을 볼 수 있음
	수 질	우리나라 특산어종인 감돌고기와 퉁사리를 비롯한 쏘가리, 갈겨니, 쉬리, 꺽지 등이 서식하는 1-2등급
	소 음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조용한 편임
자연자원	토 양	토양의 비옥도는 타지역과 비슷함
	미기후	마을의 계절변화가 커서 이를 쉽게 느낄 수 있고, 일교차가 큰 기후, 안개가 많이 끼는 편이며, 눈은 타지역과 비슷함
	지 형	마을 동쪽 금강상류의 적벽강이 위치하여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단풍이 강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곳이 있음.
	동 물	타지역에 비해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음
	수자원	마을 앞을 흐르는 금강은 수량한 풍부하고 수질이 맑음
	식 생	마을 뒷산의 양각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식생이 다양하며, 숲가꾸기를 실시
	습 지	대늪에는 수심이 깊고 주위 풍광이 수려함
농업자원	과수원	배를 중심으로 한 배 과수원이 광범위하게 분포
	밭	밭은 주로 인삼과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음
	논	논은 벼농사를 주로하고 있음

조사대상마을 중 수통리의 환경자원·자연자원·농업경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4-3>과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강경하 외: 2002: 49).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합의형성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즉 보존해야 할 경관 그리고 복원 및 창조해야 할 경관에 대해 주민들간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린투어리즘을 추진중인 마을의 경우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이벤트개발에 노력하되 특별한 특성이 없는 마을의 경우 그린투어 농가들의 학습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과정을 통한 이벤트 개발노력도 필요하다.

3. 사람과 사람의 연계

1)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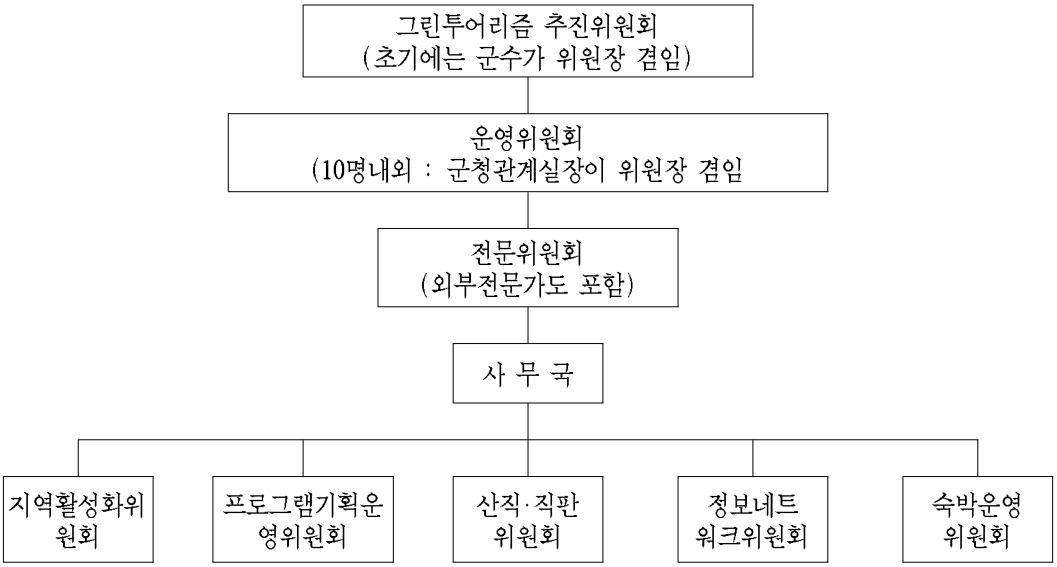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그나마 대부분 이론적이고 국가단위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 마을 속으로 들어가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의 지도자나 마을주민들도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린투어리즘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다.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의 역할은 마을주민들에게 마을활성화의 전략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의 유용성을 이해시키는 일,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마을주민들의 합의형성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 개별농가가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린투어리즘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점 해소를 지원하는 일,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개별농가와 마을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등이다.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순창군의 예를 들면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를 군 단위 조직과 마을단위 조직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순창군의 관·민, 농민과 상인, 관광업자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사람이 망라되어 문자 그대로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군수든 민간지도자든 상관없으나 사무국은 군이 맡아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프로모터요 동시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고 순창군

그린투어리즘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인선은 신중을 기하되 공무원 내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영입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4-1]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 조직도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은 군 단위조직과 지역(마을)단위 조직으로 이원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드시 군·면과 같이 행정구역단위일 필요는 없으며, 마을단위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개별농가 연합체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히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개별농가나 부녀회 등이 주도하고 외부전문가나 관련공무원(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등)이 포함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그린투어를 추진하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이 순창군과 같이 거군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단위를 중심으로 기존작목반을 활용하거나 학습회나 연구모임 형태로 구성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린투어리즘 교육기회 확충

그린투어리즘은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는데서부터 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 마을 단위 지도자 및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그

린투어리즘의 이념과 그 추진 필요성, 구체적인 추진방법,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 역할과 서비스 정신 등에 대해 학습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은 농가와 이를 포함한 농촌환경과 인심을 도시민에게 판매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농가민박 등 경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농가비지니스적인 사고나 마케팅 등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이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은 농가민박 등의 경영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경영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사항과 고객확보 등의 마케팅, 접격방법,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및 세금 등을 교육하거나 그린투어리즘의 실천경험을 상호교환하는 것이다.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군 국제협력실의 '한국그린투어리즘 연구실'을 가칭 "21세기 순창학당"으로 개칭하여 주민,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연구모임을 결성·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의 매주 주말을 이용하되 하루 4시간씩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이해 그린투어리즘의 의의와 사회경제적 효과, 추진절차와 전략·방식, 손님맞이 자세와 태도 함양, 애로사항 해결방안, 정보통신 교육 등을 계획중이다. 교육과정이수자에게는 군수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여 인증하고 자격과 자질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그린투어리즘의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지침, 영농체험활동 이벤트개발, 리더십함양과 인터넷 활용방안 등을 기본으로 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역가이드와 인스트럭터(instructor)를 양성하고, 교육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국 선진지역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촌성과 농촌주민의 환대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4.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향후과제

1)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법은 농어촌정비법이 있으며 이 법 제66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7]을 규정하고 있는데 객실수는 농어가당 5실 이내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여인숙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법·식품위생법 등의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농어촌 민박은 마을단위로 조성되고 있으며 농어가 마을에서 5호 이상의 가정이 민

7)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박사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민박사업자는 영농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가가 대상이 되므로 전문적인 숙박업자 및 상인은 제외하고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마을당 3억원 이내, 농가호당 1,500만원 이내[8]로 하고 있다. 농촌민박은 농림부, 어촌민박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농가민박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농가민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민박업 대상자에 대한 규칙 제정시 현재 1년 이상 거주 농민에 한정한 것을 현지 거주농민 외에도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여 전문적으로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규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민박업 연합체 등이 고품격 농가민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등급지정 및 서비스수준 등 심사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규정하여 민박농가의 발전을 유도하고 농가민박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기법 개발

그린투어리즘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들이 21세기를 향해 그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비지니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방문할 것이며 얼마간 체재할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투어리즘 유형[9]은 무엇인가? 방문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며 그들에게 무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농가부업정도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경영하는 농가민박에서 벗어나, 농업과 관광을 어떻게 결합하고, 숙박시설이나 농가음식점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가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그린투어리즘의 자리매김이 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실험해나갈 필요가 있다.

3)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구축

---

8)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농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박마을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지원대상은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시설 및 소요자재비이다.

9) 그린투어리즘에는 세 가지 즉, 농촌관광형, 농촌교육형, 농촌휴가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관광형은 종래의 대규모 민박지역이나 리조트개발 등으로 농촌지역의 관광자원·관광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어리즘이다. 농촌교육형은 도시의 학생을 중심으로 자연체험·자연교육을 주목적으로 한 투어리즘이다. 농촌휴가형은 농촌관광형과 같이 시장논리에도 부합되지 않고 농촌교육형과 같이 도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지역의 농가에서 반복형, 가족중심형의 수요에 대응한 투어리즘이다.

농가민박간 네트워크는 단체방문객들을 분산하여 수용할 뿐만 아니라 공동농장운영, 공동농작업체험 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며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그린투어리즘이 갖는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농가민박과 생산자 단체·농업기술센터·농협·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는 새로운 그린투어리즘 유형의 개발 및 적용, 관광상품의 개발, 농가경영기법의 지원, 재정 및 행정지원 등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농가민박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우선 농가민박을 함께 하는 농가들과 횡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그룹들과의 종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 론

농가가 기존주택을 이용하여 부업으로 추진하는 농가민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숙박시설이나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인심과 농가민박경영주의 환대에 기초하여 다양한 농작업 및 농촌전통체험활동, 농특산물의 직접판매 등과 연계되어 추진하고, 농가민박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지를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유형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충청남도에는 시·군마다 향토음식이 분포하고 있어 농가민박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중심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하거나, 농가고유의 음식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가민박경영주의 농산물을 방문객 및 인터넷판매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의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농작업을 체험하는 농장체험형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농작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작업체험이 환경농업과 결부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농업경관은 매우 중요한 상품가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경관 그리고 복원 및 창조해야 할 경관에 대해 주민들의 합의형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환경 및 경관은 마을공동의 자산으로서 개별농가가 제공할 수 없는 농촌다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추진에 초점을 둔 마을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중인 마을의 경우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이벤트개발에 노력하되 특별한 특성이 없는 마을의 경우 그린투어 농가들의 학습 및 선진지 벤치

마킹 등의 과정을 통한 이벤트 개발노력도 필요하다.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은 반드시 군·면과 같이 행정구역단위일 필요는 없으며 마을단위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개별농가 연합체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히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개별농가나 부녀회 등이 주도하고, 외부전문가나 관련공무원(군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등)이 포함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그린투어를 추진하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농가민박 등 경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농가비지니스적인 사고나 마케팅 등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이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에는 그린투어리즘의 편익, 발생가능한 문제와 그 해결책, 그린투어리즘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편익을 얻는 방법, 환경과 역사문화 보전의 중요성, 환경질의 모니터링 방법 등이 포함된다.

참 고 문 헌

강경하・조순재. (2002). 농촌어메니티자원 현황과 활용. 농촌어메니티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심포지엄,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한국농촌계획학회.

강신겸. (2001).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김정연 (역). (1997). 「녹색관광」. 일신사.

김범수 외. (2001).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16(1).

김재민. (2000). 어촌·어항의 관광상품화 방안. 어촌·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 해양수산부.

김행기. (2001). 신비의 건강마을, 금산군 민박여행.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한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농림부. (2002). 「2002농림사업시행지침서」.

민상기・김정연. (1995).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중서림. (1997). 「엣센스 국어사전」.

박시현. (2000).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송미령. (2002). 농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REI·농특휘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청. (1990). 「녹색관광과 산촌활성화」.

송미령. (2001).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방안.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

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순창군. (1999).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기본구상」.
윤대순. (2000). 외래관광자를 위한 민박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7.
이동기. (2002).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지방자치발전 및 행정개혁,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호철. (2000).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방안 : 대구시의 약초시민농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0.
임득춘. (2000).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아름다운 지역매력 부각.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정기환. (2001).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2).
정안성. (2001).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 전북 무조, 진안,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5(2).
정의국. (2001). 소비자가 찾아오는 농장, 아리랜드. 여가와 농촌활성화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조계현 외. (2000). 「녹색관광」. 누리에.
조영숙. (2000). 농촌·농업관광사업 운영실태 분석. 「농촌생활과학」, 21(12), 농촌생활연구소.
최영국. (2000).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및 과제. 국토연구원, 「국토」, 2000. 5.
최희갑. (2002). 2002년 TREND 10(국내편). 「CEO Information」, 제32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부.
행정자치부. (2001). 「21세기 새로운 농촌 만들기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홍성권・김성일. (2002). 녹색관광의 참여의도에 관여하는 영향인자와 제한요소 규명. 「한국조경학회지」, 30(1).
환경부. (2000). 「자원유형별 생태관광 추진전략 수립 연구」.
Dernoi, L. A. (1991). Prospects of Rural Tourism; Needs & Opportuni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6(10).
Gunn, Clare A. (1988). *Tourism Planning.* New York : Taylor & Francis.
Hill, Brian J. (1993). The Future of rural Tourism. *Park & Recreation*, September 1993.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9_1.htm
http://www.milenium.pe.kr/ustour.htm